

세계 한인회장 초청 다과회

- 인사말 -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별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같이 얼굴보고 만나는 것이 백마디 말보다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국에서 와서 전 세계 흩어져 사는 동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폭넓게 논의하시고, 같이 대화하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이고, 건강하게 친구를 찾은 것만 해도 기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보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이광규 이사장 옛날 얘기하셨는데 “쳐다보고 울었다”는 그 말만 기억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옛날인 것 같습니다. 요즘 딸이 친정 오면 우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이 무뎠던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가슴에 한이 맺혀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저는 대통령 시작부터 레임덕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픈 것도 있고 내색깔대로 하고픈 것도 있고, 누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권당의 힘이 약해 일이 잘 안됐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작할 때 보다는 걱정이 1그램이라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발짝이든 반 발짝이든 앞으로

가고 있고 어떤 것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칙대로 순리대로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아래 살고 있고 법 위에 살고 있던 사람도 법대로 합니다.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꺼냈지만, 상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큰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세계화 시대이고 첨단과학시대입니다. 한국은 어느 쪽에서도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 천주교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배 이념과 맞지 않는 사상이라 해서 독선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와 나라 분열시대, 독재시대에 이르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시대였습니다.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나와 다르면 다 죽이는, 배제하는 투쟁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동포 사회에서 통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재와 반독재, 지역을 갈라 싸우고, 서구와 같은 배타를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통합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동포 사회도 뼈격거리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국내에서도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뛰어 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동포사회도 마음을 열고 극복해야 합니다. 해외 동포들이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분열과 극복의 흐름이 우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재외동포 재단의 제주도 이전은 오늘 나도 처음 알았습니다. 제주도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재외동포 재단의 제주 이전을 철회한다고 하면 나머지 170여개 공공기관도 다 그러고 나오면 곤란해집니다. 고국에 한번 올 때 제주도 한 번씩 들러 주십시오.